

傳統鍼灸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오준호,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Document Research for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Oh Jun Ho, Ahn Ahn sang woo***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 Department of Academ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ive

This research is a process of examining the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left in our document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explaining the process of researching documents and reporting several points revealed in this process.

2) Process

This study was done through the following steps:

- (1) We located the Acupunctural Methods in the original text database on the web.*
- (2) We sorted them according to criterion.*
- (3) We set up some standard clauses in order to organize the selected information.*
- (4) We re-organized the information following the standards within the categories.*

(5) *As for clauses that were not fully explained in the documents, we tried to restore them through other documents.*

3) *Results*

(1) *11 standard clauses were set up in order to organize the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2)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were extracted from 22 documents,*

(3) *24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were extracted and organized by standards.*

(4) *We learned of similar methods with resembling ways of drawing blood and methods with deep interest in the depth of needle insertion. Also, we were able to gain a clue to the exchange of Acupunctural Methods among the three Asian 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research using the Korean Medicine Database.*

Key words : Traditional Acupunctural Methods, database

I. 들어가며

한의학에서 ‘技法’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시행되는 기술과 방법들을 말한다. 이 가운데 ‘鍼灸技法’은 침과 뜸을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침과 뜸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技法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鍼灸技法에는 역사적의 흐름 속에서 출현하였다가 소멸되기도 하였고, 지금까지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전해지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에 와서 새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 외국의 기법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우리의 기법이 외국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

필자는 오늘날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鍼灸技法의 원류를 찾아 우리 침구의학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 침구의학의 영역을 풍부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문헌 속에 남겨져 있는 傳統鍼灸技法에 주목하였다. 傳統鍼灸技法은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침구기법들로서 세월을 거치면서 잊혀지고 변형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침구의학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 이들 전통침구기법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들 傳統鍼灸技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이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임상에서 잊혀진 傳統鍼灸技法을 복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상에 구축된 원문DB를 통해 수행되었다. DB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鍼灸技法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검토 후 추출된 기법들은 기준 항목을 마련하여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 때 문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서는 다른 문헌을 통하여 문헌적인 복원을 시도하였다.

이 글은 문헌 속에 남겨진 전통침구기법을 복원하기 위해 수행된 문헌조사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기법의 분화와 침구기법 교류에 대한 몇 가지 지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목적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침구법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이 가운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침구기법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우리 침구의학의 특징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문헌 중에 나와 있는 한국 傳統鍼灸技法을 복원하여 실제 임상에 새로이 적용할 수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채록, 정리 작업은 침구기법의 복원이라는 전체 속에서 이루어 졌다.

2. 조사 문헌 및 기법 채록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침구기법을 수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서를 조사 문헌으로 하였다. 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¹⁾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서들 가운데, “鍼”, “針”, “灸”라는 단어로 내용이 검색되는 216개의 문헌을 일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鍼”, “針”, “灸”이라는 검색어는 침구 기법을 가장 광범위하게 추출해 내기 위하여 선택되었으며,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에서 “針”, “鍼”, “灸” 세 단어에 대하여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²⁾

1)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는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한의학연구원(사업책임자 학술정보부장 안상우)의 주관아래 이루어졌다. 이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의학 고문헌 DB구축 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국 한의학 문헌의 원문과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2) 이 세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구절을 찾는 방식이다.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서는 or연산자인 “|”을 이용하여, “針|鍼|灸”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그림 1 한의학 지식 정보자원 웹 서비스 검색 결과 화면 예시

이렇게 검색된 침구기법들을 일련의 검토 과정을 통해 전통침구기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법들과 그렇지 않은 기법들로 나누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법들만을 추출하였다. 검토와 추출 과정은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1. 韓國의 傳統醫學이라고 인정되는 鍼法·灸法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³⁾
2. 침구학 교과서에 실려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되거나, 이미 전수되고 있는 기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문헌의 기록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기법의 응용법이나 자세한 시술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법의 복원을 목적으로 채록한다.⁴⁾

3) 김남일은 그의 연구에서 “한국의 전통의학”을 “한국인이 질병을 치료해나가면서 발전해온 한국 땅에 존재하는 의학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김남일의 견해를 따른다.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16권 1호, 2003) 20쪽에서 인용

4) 송암鍼法の 경우에는 침구학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며 한의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침법은 단지 임상에서 기법적으로 분화되지만 하였을 뿐, 의서에 충실하게 복원되지 못한 면이 있다. 기법이

3. 기준항목 선정

검색과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된 침구기법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 기준문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해 보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⁵⁾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⁶⁾는 몇 종 있었으나 참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단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을 정리할 기준 문항을 정하였다. 다음 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침구기법을 정리한 방식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1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사 연구의 정리 기준 예시

① 『(韓醫)療法 匯通』(새천년, 2000)의 정리 기준

- * 개요
- * 기본내용
 - 혈위 / 취혈 / 조작법 / 주의사항
- * 임상응용
- * 적응증(진단)

표 2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정리 기준 예시

① 『傳統療法大成』(長春出版社, 1995)의 정리 기준

- * 요법개술
- * 요법소개
 - 혈위 및 주치 / 취혈원칙 / 배혈방법 / 공구와 약물 / 조작방법
- * 료법평가
 - 료법 적응증 / 료법 특징 / 료법 단점 / 료법 주의사항 및 금기
- * 료법 예시

② 『中華獨特療法大成』(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7)의 정리 기준

- * 소개
- * 기본내용
 - 혈위 및 주치 / 선혈원칙 및 배혈방법 / 침구 및 공구 / 조작방법
- * 적용범위
- * 주의사항

가지는 본래에 의미를 복원해 보고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5) 유사한 내용의 저서로는 박희수, 박재성, 『(韓醫)療法 匯通』(새천년, 2000)이 있다.

6) 閻洪臣 外, 『傳統療法大成』(長春出版社, 1995)
 王吉勻 外, 『中華獨特療法大成』(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7)
 梁繁榮 外, 『中國民間奇特針法』(上海科學技術, 1999)

③ 『中國民間奇特針法』(上海科學技術, 1999)의 정리 기준

- * 개술
 - * 조작방법
 - * 주치병증
 - * 주의사항
-

4. 기법의 정리와 보완

추출된 기법은 정리와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앞서 검토를 끝낸 침구기법들을 정해진 기준 항목에 맞추어 정리하고, 문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검토의 작업을 마친 침구기법은 주로 경험방서들에 필사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임상에서의 응용방법이나 적용범위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 간단한 주치를 치료하기 위한 기법들이 짧게 소개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기법 자체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법의 복원과 임상응용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문헌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였다.

검토된 침구기법을 정리하는 작업은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 문헌이 방대하기도 하였지만 傳統鍼灸技法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선 중기 대표적인 침구전문의서인 許任 『鍼灸經驗方』에 대한 박문현의 연구⁷⁾가 있어 이를 참고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시범적으로 『鍼灸經驗方』에 나오는 전통침구기법을 추출, 검토하고 이를 정리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헌정리의 기준항목

앞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정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명칭, 개요, 유래 및 근거문헌, 기본방식, 임상응용, 주의사항, 분석평가, 특이사항, 참고문헌, 채록자, 해당원문 등이 그것이다. 이 내용들은 임상을 위한 복원 작업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보다 자세하게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기법의 시간적 공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사학적인 연원 또한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각각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研究」(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표 3 문헌정리의 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설명

① 명칭	기법의 창안자가 명명한 명칭이나 최초 출현문헌에서 언급한 명칭을 기본으로 한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수록한다. 적절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채록자가 명명하고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② 개요	해당 기법을 간단명료하게 부각하여 기술한다. 기법의 정의에 해당한다.
③ 유래 및 근거문헌	채록한 한국의학문헌을 “근거문헌”으로 표기하고, 전래된 경우에는 처음 형태가 담겨져 있는 원시문헌을 “유래”로 기록한다. 원시문헌의 고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급가능한 최초의 문헌이나 저작자, 혹은 중간 인용문헌과 수록자를 “유래”로 삼는다.
④ 기본방식	기법의 기본적인 조작법과 회수, 시간, 용량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⑤ 임상응용	임상에서 사용할 때의 방법과 적응증, 활용예시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도로 설명한다.
⑥ 주의사항	임상응용상의 금기사항이나 주의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경과증상등을 기술한다.
⑦ 분석평가	기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기법이 가지는 의의나 고안점 등을 명시한다.
⑧ 특이사항	위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⑨ 참고문헌	기법 복원에 참고한 논문이나 저술들을 밝힌다.
⑩ 채록자	기법을 추출하여 정리한 사람을 밝힌다.
⑪ 해당원문	기법의 원문을 밝힌다.

2. 정리된 기법 현황

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鍼灸擇日法, 八穴灸法, 五臟俞灸法, 鍼中腕穴手法, 關節穿刺法, 刺絡附缸灸法, 許任補瀉法, 水分出水法, 結紮刺絡法, 背腫破鍼法, 鷄足鍼法, 水疝倭人灸法, 五花穴灸法, 氣衝灸法, 昏絕穴과 燕尾穴, 舍岩鍼法, 癰積鍼法, 睫腫鍼法, 牛角灸法, 炙瓦片壓法, 臀膜烙鍼法, 火鍼法, 藏珍鍼法, 太極鍼法 등의 요법들을 정리 복원하였다. 다음은 복원한 침구요법의 명칭과 수록서적, 정리항목 가운데 ‘② 개요’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4 조사된 침구기법의 종류와 인용서 및 개요

침구요법의 명칭	수록된 서적 및 ‘② 개요’ 설명문장
鍼灸擇日法	『鍼灸擇日編集』, 『東醫實鑑』, 『鍼灸經驗方』
	천인상응의 한의학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침구치료에 있어서의吉日과 忌日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치료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한 방법.
八穴灸法	『重刊神應經』, 『鍼灸經驗方』
	조선 成宗 때 日人 良心이 『神應經』과 함께 조선에 헌납한 灸法으로, 응저를 발생한 부분에 따라 머리·등·손·발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에 따라 각각 두 穴자리를 선혈하여 여기에 뜸을 떠서 제반 癰疽·疔·癩·瘰癧 등의 痛腫을 치료하는 뜸법.
五臟俞灸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五臟六腑의 장부병기를 통해 등[背]에 있는 背俞穴을 이용하여 五臟病을 치료했던 灸法.
鍼中腕穴手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中腕穴에 침을 깊이 자입하여 제반 병증을 치료했던 침법.
關節穿刺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견관절·주관절 등의 빈 공간을 침으로 관통시켜 통증 및 운동장애를 치료했던 침법.
刺絡附缸灸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통증이 심한 질환이나 積聚로 인한 병변에 통치를 刺絡하고 出血시키고 焮으로 생긴 음압으로 부항을 붙여 치료했던 방법.
許任補瀉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刺針 후 의사의 손을 이용하여 補瀉를 행했던 방법.
水分出水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의 鍼灸 名醫 許任이 浮腫 및 鼓脹 등 腹水가 차는 병증에 水分穴에 침을 찌러 물을 빼내준 針刺術.
結紮刺絡法	『鍼灸經驗方』
	조선 중기의 鍼灸 名醫 許任이 傷寒과 瘟疫의 熱로 인해 발생한 頭痛引飲하는 증상과 大頭瘡과 蝦蟆瘡으로 인후부위가 부어서 폐색되는 등의 위급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으로 사혈할 곳의 위 아래를 실로 묶고 絡血에서 피를 내는 수법.
背腫破鍼法	『治腫秘方』, 『醫彙』
	背腫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침으로 背腫을 十字 형태로 가르고 파괴시켜 惡血을 빼내는 외과시술법.

<p>鷄足鍼法</p>	<p>『東醫寶鑑』, 『鍼灸極秘傳』 가슴과 복부에 積聚를 제거하거나, 肌肉間의 邪氣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鍼法으로 닭의 발 모양으로 침을 斜刺하여 찌르는 침자 수법.</p>
<p>水疝倭人灸法</p>	<p>『四醫經驗方』, 『廣濟秘笈』, 『仁濟志』, 『醫彙』 水疝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를 竹馬에 태우고 同身寸法으로 등에 두 개의 혈자리를 찾아 뜸을 뜨는 뜸법.</p>
<p>五花穴灸法</p>	<p>『舟村新方』, 『醫方合編』, 『醫彙』 胸痛 · 胸腹痛 · 腹中塊痛 · 傷寒腹痛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를 竹馬에 태우고 同身寸法으로 등에 다섯 개의 혈자리를 찾아 뜸을 뜨는 뜸법.</p>
<p>氣衝灸法</p>	<p>『舟村新方』, 『醫彙』, 『秘傳萬病通治法』 脚氣를 치료하기 위하여 鼠蹊部 氣衝穴 부근의 경결점에 뜸을 떠서 치료하는 뜸법.</p>
<p>昏絶穴과 燕尾穴⁸⁾</p>	<p>『舟村新方』, 『醫方合編』, 『醫彙』 胸腹痛에 사용하는 새로운 경혈로서 燕尾穴과 昏絶穴.</p>
<p>舍岩鍼法</p>	<p>『舍岩鍼灸要訣』 조선시대 중기에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진 舍巖道人的 저작으로 陰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하여 臟腑의 虛實에 따른 침구보사법을 상생관계 뿐만 아니라 상극관계까지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自經과 他經補瀉法을 결부시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침법.</p>
<p>癖積鍼法</p>	<p>『及幼方』 조선 肅宗때 소아과 명의 趙廷俊이 침으로 皮膚을 뚫어 정체된 기운을 흩어 소아의 癖積을 치료했던 침자수법.</p>
<p>睫腫鍼法</p>	<p>『丹谷經驗方』, 『醫方合編』, 『醫寶』, 『醫彙』 睫腫(눈꺼풀이 붓는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운데 손가락과 가운데 발가락을 출혈시키는 鍼法</p>
<p>牛角灸法</p>	<p>『鍼灸經驗方』, 『醫方合編』, 『醫彙』, 『良方金丹』 썩을 牛角모양(속이 빈 원뿔형태)으로 만들어 배꼽을 비롯한 체간에 뜸을 뒀던 방법으로, 복통 설사 등의 질환을 치료했던 뜸법.</p>
<p>灸瓦片壓法</p>	<p>『醫彙』 風寒으로 생긴 근골격계 疼痛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약속에 물에 적시어 환처에 붙이고 기와 조각을 뜨겁게 달구어 그 위를 눌러주는 수법이다.</p>

腎膜烙鍼法	『附方便覽』
	눈에 생긴 腎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끝이 평평한 침을 불에 달구어 눈에 생긴 腎膜을 가볍게 지지주는 수법.
火鍼法	『附方便覽』, 『壽世寶訣』
	침을 자침하기 전에 불이 달구어 가열한 다음, 침이 뜨거운 상태에서 경혈에 찌르는 침구 수법.
藏珍鍼法	『藏珍要編』
	팔맥교회혈을 포함하여, 각 경혈을 대표하는 주요 경혈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조합하여 치료에 사용하는 종합 침법.
太極鍼法	『鍼道原流重磨』
	李炳幸이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을 토대로 고안한 침법으로서, 心經의 혈을 이용하여 체질을 감별하고 질병의 치료에는 四象人의 臟腑配合과 臟腑大小의 순서를 관련시켜 十二原穴을 취혈하는 침법.

3. 근거문헌별 기법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기법들은 모두 문헌 출처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전문침구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鍼灸經驗方』 이외에는 민간 경험방서에 부분적으로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진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및 종합의서 격인 『仁濟志』 등 대형의서들은 방대한 침뜸 치료법 들을 싣고 있었지만, 기존에 알려진 침구법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간혹 중요하게 생각한 침구법들의 경우⁹⁾에도 임상적인 쓰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출전문헌을 인용하는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침구 기법이 채록된 출전 의서들을 연대별로 나열하고 수록된 침구요법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의서들은 수록하고 있는 요법들과 개략적인 시대를 참고로 임의로 차례지었다.

8) 昏絶穴과 燕尾穴은 경외기혈로서 의서에 胸腹痛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昏絶穴은 족내과 조금 아래쪽에 있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燕尾穴은 그 명칭만 언급되어 있다. 내용에 대한 불완전함은 둘째로 하더라도 이 경외기혈, 더 정확히 별혈을 침구기법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別穴'에 대한 가능성을 환기시키고자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삽입하였음을 밝힌다.

9) 『東醫寶鑑·鍼灸篇』의 鷄足鍼法의 경우, 하나의 조문으로 따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과, 『鍼灸極秘傳』의 鷄足鍼法 내용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중요한 침구 기법의 하나였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의보감에서는 자세한 임상운용 대신 의학강목의 설명만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 5 침구 기법이 채록된 출전 의서와 수록된 침구요법들

書名	저자	연도	수록된 침구요법	기법개수
『鍼灸擇日編集』	全循義 金義孫	1447	鍼灸擇日法	1
『重刊神應經』	陳會	1474	八穴灸法	1
『治腫秘方』	任彦國	1559	背腫破鍼法	1
『東醫寶鑑』	許浚	1610	鷄足鍼法, 鍼灸擇日法	2
『鍼灸經驗方』	許任	1644	五臟俞灸法, 鍼中腕穴手法, 關節穿刺法, 刺絡附缸灸法, 許任補瀉法, 八穴灸法, 水分出水法, 牛角灸法, 鍼灸擇日法, 結紮刺絡法	10
『四醫經驗方』	李碩幹 外 ¹⁰⁾	17C	水疝倭人灸法	1
『舟村新方』	申曼	1687	五花穴灸法, 氣衝灸法, 昏絕穴과 燕尾穴	3
『舍岩鍼灸要訣』	舍岩道人	17C	舍岩鍼法	1
『及幼方』	趙廷俊	1749	癖積鍼法	1
『丹谷經驗方』	미상	미상	睫腫鍼法	1
『鍼灸極秘傳』	木村元貞	1780	鷄足鍼法	1
『廣濟秘笈』	李景華	1790	水疝倭人灸法	1
『仁濟志』	徐有渠	19C	水疝倭人灸法, 氣衝灸法	2
『醫彙』	錦里散人	1871	五花穴灸法, 睫腫鍼法, 牛角灸法, 昏絕穴과 燕尾穴, 背腫破鍼法, 水疝倭人灸法, 灸瓦片壓法	6
『醫方合編』	미상	미상	五花穴灸法, 睫腫鍼法, 牛角灸法, 昏絕穴과 燕尾穴	4
『醫寶』	미상	미상	睫腫鍼法	1
『良方金丹』	미상	미상	牛角灸法	1
『附方便覽』	黃度淵	1855	腎膜烙鍼法, 火鍼法	2
『藏珍要編』	松又溪	1894	藏珍鍼法	1
『壽世寶訣』	李昌雨	1929	火鍼法	1
『秘傳萬病通治法』	李宗壽	1933	氣衝灸法	1

『鍼道源流重磨』 ¹¹⁾	李炳幸	1974	太極鍼法	1
-------------------------	-----	------	------	---

4. 기법의 보완

이상의 기법들은 문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명칭 정도만 소개된 것들도 있다. 또 임상적으로 어떻게 응용하였는지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다음은 조사된 각 기법에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기호 ‘○’로, 문헌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기호 ‘X’로 표시한 표이다. ‘X’로 표시된 부분은 문헌 속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 기준에 따라 기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③ 유래’의 경우에는 이전 문헌에 그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있음’, ‘없음’으로 표시하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미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조사된 침구기법의 기준 문항별 문헌내 존재 여부

침구요법	① 명칭	② 개요	③ 유래	④ 기본방식	⑤ 임상응용	⑥ 주의사항
鍼灸擇日法	○	○	있음	○	○	X
八穴灸法	○	○	있음	○	○	X
五臟俞灸法	X	X	있음	○	○	X
鍼中腕穴手法	○	○	없음	○	○	○
關節穿刺法	X	X	있음	○	○	○
刺絡附缸灸法	X	X	있음	○	○	X
許任補瀉法	X	X	있음	○	X	X
水分出水法	○	X	있음	○	○	X
結紮刺絡法	X	X	없음	○	○	X
背腫破鍼法	X	○	없음	○	○	○
鷄足鍼法	○	○	있음	○	○	X
水疝倭人灸法	○	X	있음	○	○	X

10) 四醫는 일반적으로 李碩幹, 蔡得己, 朴濂, 許任를 가리킨다.

11) 太極鍼法은 四象醫學을 침법으로 운용하였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법은 李炳幸이 만든 것으로, 그의 저작 『鍼道源流重磨』와 함께 1974년에 발표되었다. 기법의 성립연대가 해방 이후로 비교적 늦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사상체질의학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기법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五花穴灸法	○	X	있음	○	○	○
氣衝灸法	X	X	없음	○	X	X
昏絶穴과 燕尾穴	○	X	없음	X	X	X
舍岩鍼法	○	X	있음	○	○	X
癰積鍼法	X	○	없음	○	○	X
睫腫鍼法	X	X	미상	○	X	X
牛角灸法	○	X	없음	X	○	X
灸瓦片壓法	X	X	없음	○	○	X
腎膜烙鍼法	X	X	미상	○	X	X
火鍼法	○	○	있음	X	X	○
藏珍鍼法	X	X	있음	○	○	X
太極鍼法	○	○	없음	○	○	X

보완에 사용된 방법은 기준 문항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① 명칭’의 보완

기법의 명칭이 문헌상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 기법의 방법을 축약하여 기법을 명명하였다.

- 五臟俞灸法, 關節穿刺法, 刺絡附缸灸法, 結紮刺絡法, 背腫破鍼法, 氣衝灸法, 灸瓦片壓法, 腎膜烙鍼法

* 기법의 대표적인 적응증을 사용하여 기법을 명명하였다.

- 癰積鍼法, 睫腫鍼法, 腎膜烙鍼法

* 기법이 적혀있는 서적이거나 기법을 사용한 인물의 고유명사로 기법을 명명하였다.

- 藏珍鍼法, 許任補瀉法

2) ‘② 개요’의 보완

기법의 성격이나 개념을 문헌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법의 방법과 적응증을 통해 이를 규정하였다.

* 藏珍鍼法의 경우

- 본문에는 이 침법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침

법의 분석을 통해 이 침법이 八脈交會穴과 足三里, 合谷, 太衝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들 경혈들은 각 경락을 대표하는 경혈로 선택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藏珍鍼法の 개요를 “팔맥교회혈을 포함하여, 각 경혈을 대표하는 주요 경혈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조합하여 치료에 사용하는 종합 침법.”이라고 보완하였다.

3) ‘④ 기본방식’의 보완

대부분의 기법은 시술 방식이 적혀있었는데, 이 가운데 그 방법이 정확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시술 방법이 정확하지 않은 기법은 가장 개연성 있는 방법을 찾아 내용을 보충하였다.

* 牛角灸法の 경우

- 牛角灸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나와 있지만 牛角灸가 어떤 뜸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許任 『鍼灸經驗方』에 “오래된 쭉으로 소 뿔과 같이 속이 빈 모양을 만들어 배꼽위에 뜸을 뜬다. 애주가 반쯤 타들어 가면 제거한다.”¹²⁾ 하는 문장을 근거로, “뜸뜨는데 쓰는 쭉을 속이 비어있는 원뿔 형태로 만든다. 이때 원뿔은 牛角과 같이 길고 가름한 형태로 만든다.”라고 보완 하였다.

* 火鍼法の 경우

- 침을 달굴 때 사용하는 ‘麻油’가 어떤 기름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언해본 의서를 통해 ‘麻油’가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등으로 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麻油’를 ‘참기름’이라고 보완하였다.

4) ‘⑤ 임상응용’의 보완

조사된 기법들 가운데 문헌에 주치증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주치증의 병기 증상 특징 등을 『東醫寶鑑』을 근거로 보완하였다.

* 氣衝灸法の 주치증인 ‘脚氣’, 睫腫鍼法の 주치증인 ‘睫腫’, 腎膜烙鍼法の 주치증인 ‘腎膜’등에 대하여 『東醫寶鑑』에 기술된 한의학적 설명을 보충하였다.

5) ‘⑥ 주의사항’의 보완

주의사항은 문헌에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침자법의 주의사항과 아울러 기법 수행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 睫腫鍼法の 경우

12) 許任 『鍼灸經驗方·小兒』(1644)

… 以熟艾 形如牛角內空 灸臍中七壯 其艾炷每火至半即去 …

- 睫腫鍼法の 주치증인 睫腫 혹은 偷鍼은 일정한 병기를 가진다. 초기에는 가려움과 이물감으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화농을 형성하게 된다. 이미 화농이 되었다면 화농을 터뜨려 배농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하므로 睫腫鍼法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睫腫鍼法은 睫腫 혹은 偷鍼 초기에 사용하여야 하며, 화농된 이후에는 화농을 터뜨리는 치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정에 맞는 시기 적절한 치료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주의사항을 보완하였다.

5. 기법의 분류

이상의 요법들은 다시 일정한 성격별로 분류할 수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질환에 두루 응용할 수 있는 기법인 경우에는 ‘종합기법’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 종합기법에 속하는 침법들은 대부분 정해진 경혈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국부기법’은 하나의 경혈 혹은 몸의 한 부위에만 시술되는 기법으로, 주치증도 국한된 경우가 많다.

‘취혈기법’은 경혈을 찾아내는 방식이 중요한 기법으로서, 시술하는 경혈 자체가 중요한 수법이다. 이에 반하여 ‘침자기법’은 경혈보다는 경혈을 자침하는 방법이 중요한 수법이다. ‘보사수기법’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보사수기법은 補法과 瀉法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법들이다. ‘외과기법’은 피부를 가르고 체내의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킨다든지, 체표의 물질을 긁어낸다든지 하는 외과적인 시술을 위주로한 수법이다. ‘특이기법’은 침과 뜸이라는 고정된 방법 이외에 침과 뜸을 혼합한다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하는 기법들을 가리킨다. ‘별혈기법’은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경혈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혈이다. 취혈기법이 경혈의 위치를 잡는 것을 중요시 한 것에 비하여, 별혈기법은 특효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택일기법’은 침을 찌르거나 뜸을 뜨는 대에 있어 시간적인 운용을 중요시하는 기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된 기법들을 분류해 보았지만, 이들 분류는 서로 겹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법 내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상의 분류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침자기법의 분류항목과 설명 및 조사기법의 분류 예시

분류	설명	분류 예시
종합 기법	선혈이나 침자기법을 변형시켜 모든 병증에 두루 응용할 수 있는 침뜸기법	舍岩鍼法, 藏珍鍼法, 太極鍼法
국부 기법	인체에서 정해진 국부 부위에만 시술되는 침뜸기법	鍼中腕穴手法, 關節穿刺法, 氣衝灸法, 五臟灸法

취혈 기법	선혈하는 방식이 중요한 침뜸기법	八穴灸法, 水疝倭人灸法, 五花穴灸法, 睫腫鍼法
침자 기법	침자하는 방식이 중요한 침뜸기법	火鍼法, 鷄足鍼法, 癰積鍼法
외과 기법	외과적인 기술을 중요시한 침뜸기법	背腫破鍼法, 腎膜烙鍼法, 水分出水法
보사 수기 법	보사의 방식이 독특한 침뜸기법	許任補瀉法
특이 기법	큰 범주에서는 침뜸기법에 속하나 침과 뜸 이외에 보다 정교한 기술법이 중요한 침뜸기법	刺絡附缸灸法, 牛角灸法, 灸瓦片壓法, 結紮刺絡法
별혈 기법	특정 경혈을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한 침뜸기법	昏絶穴과 燕尾穴
택일 기법	시술하는 시간을 중요시한 침뜸기법	鍼灸擇日法

IV. 고찰 및 결어

지금까지, 문헌을 통하여 전통침구기법을 조사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전통침구기법의 정리하기 위하여 명칭, 개요, 유래 및 근거문헌, 기본방식, 임상응용, 주의사항, 분석평가, 특이사항, 참고문헌, 채록자, 해당원문 등의 기준항목으로 마련하였다. 기법들은 『鍼灸擇日編集』, 『重刊神應經』, 『治腫秘方』,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四醫經驗方』, 『舟村新方』, 『舍岩鍼灸要訣』, 『及幼方』, 『丹谷經驗方』, 『鍼灸極秘傳』, 『廣濟秘笈』, 『仁濟志』, 『醫彙』, 『醫方合編』, 『醫寶』, 『良方金丹』, 『附方便覽』, 『藏珍要編』, 『壽世寶訣』, 『秘傳萬病通治法』, 『鍼道源流重磨』의 고전문헌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DB의 검색을 통한 추출, 전통 기법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기준항목을 통한 정리의 과정을 거쳐 鍼灸擇日法, 八穴灸法, 五臟俞灸法, 鍼中腕穴手法, 關節穿刺法, 刺絡附缸灸法, 許任補瀉法, 水分出水法, 結紮刺絡法, 背腫破鍼法, 鷄足鍼法, 水疝倭人灸法, 五花穴灸法, 氣衝灸法, 昏絶穴과 燕尾穴, 舍岩鍼法, 癰積鍼法, 睫腫鍼法, 牛角灸法, 灸瓦片壓法, 腎膜烙鍼法, 火鍼法, 藏珍鍼法, 太極鍼法 등의 기법이 정리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 전통기법으로서 치료법의 독특함이 인정되었다. 이들 기법들은 다시 종합기법, 국부기법, 취혈기법, 침자기법, 외과기법, 보사수기법, 특이기법, 별혈기법, 택일기법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기법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지역간 기법 교류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 DB를 통한 연구 방법에 대한 가능성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서 이를 짧게 정리해 보았다.

1. 특이취혈 기법의 비교 - 八穴灸法, 水疝倭人灸法, 五花穴灸法

기법 가운데, 등에 뜬을 떠서 질병을 치료하는 유사한 특이취혈 기법들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八穴灸法은 성종4년(1473)에 일본인 副官 良心이 『神應經』과 함께 조선에 헌납한 침법으로서,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인 和介氏 丹波氏が 癰疽를 치료했던 방법이라고 한다.¹³⁾ 이 神應經은 다음해 조선에서 『重刊神應經』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는데 부록의 형식으로 이 八穴灸法이 함께 실리게 된다. 이 기법은 몸의 특정 부위를 벗겼으로 채고 이 길이만큼 등 뒤로 돌아간 부분에 뜬을 뜨는 수법으로, 취혈하는 방식과 주치증이 매우 특이한 수법이다. 이 수법은 許任의 『鍼灸經驗方』에도 수록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水疝倭人灸法 역시 그 이름을 통해 일본에서 전해진 수법으로 추측되는데, 몸의 특정 부위를 켜 다음 그 길이만큼 등 뒤에서 올라간 부위에 뜬을 뜨는 방법이다. 뜬을 뜰 때에는 환자를 竹馬에 태우는데, 癰疽치료 방법으로 유명한 騎竹馬灸法¹⁴⁾에서 파생되어 나온 기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水疝倭人灸法의 주치증이 제반 疝證, 특히 水疝을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五花穴灸法 또한 동신촌법으로 지표 길이를 측정한 다음, 그 길이만큼 등 뒤에서 올라간 부분에 혈자리를 잡고, 竹馬를 태우고 뜬을 뜨는 방법이다. 기법상에 있어서 水疝倭人灸法과 비슷하지만 주치증이 胸部 腹部的 疼痛疾患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법은 騎竹馬灸法과 일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치증을 가지고 있으며 기법상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중국 문헌에서는 이런 형태로 치료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법들은 모두 동신촌법을 활용하여 등 뒤에 혈위를 잡는 것을 중요시 하였으며, 등에 뜬을 떠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 혈자리를 취혈하는 방법이 쉽지 않으며, 환자를 竹馬에 태우는 방식도 매우 번거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水疝倭人灸法’은 4개의 경험의서에, ‘五花穴灸法’은 3개의 경험의서에 보이며, ‘八穴灸法’은 許任의 『鍼灸經驗方』에 설명을 좀 더 쉽게 하여 다시 실려 있다.

13) 『重刊神應經·重刊神應經序』

… 適有日本釋良心 以神應經來獻 兼傳其本國神醫 和介氏丹波氏 治癰疽八穴法 其八穴雖未試用神應經 其傳授遠有所自 而所論折量補瀉法 皆古賢所未發者 其取穴又多起發 古人所未盡處 其所著穴 皆撮其切要而得效多者 文蘭[簡]而事周 令人披閱胥刻間 證與穴 瞭然在目 …

14) 騎竹馬灸法은 작자가 밝혀 지지 않은 『備急灸法』(12C)에 처음 등장하는灸法으로서 癰疽와 瘡瘍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여온 방법이다.

임상에서 번거로운 기법들이 여러 형태로, 여러 의서에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복잡한 시술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다른 기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치로 가지고 있는 癰疽, 水疔, 胸腹疼痛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질적인 질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옳다. 이러한 고질적인 질환에 대하여 등에 뜬을 떠주는 일군의 침구기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東醫寶鑑·鍼灸篇』에도 八穴灸法, 水疔倭人灸法, 五花穴灸法과 유사한 방법들이 보인다. 이들은 『東醫寶鑑』에서 ‘奇穴’로 소개하고 있는 ‘取膏肓俞穴法’, ‘取患門穴法’, ‘取四花穴法’, ‘騎竹馬灸法’이다. 이들 또한 동신촌법으로 혈위를 잡고, 등에 뜬을 뜨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東醫寶鑑』에 설명된 이들 기법은 단순히 기존 奇穴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일군의 뜬법을 『東醫寶鑑』이 역대 기법들 속에서 능동적으로 수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새로 정리된 세 개의 기법과 기존의 騎竹馬灸法을 비교한 것이다.

표 8 八穴灸法, 水疔倭人灸法, 五花穴灸法과 騎竹馬灸法의 비교

	八穴灸法	水疔倭人灸法	五花穴灸法	騎竹馬灸法
지표 길이	머리·등·손·발 네 부위에 따라 다름	배꼽 중앙 ~ 陰莖 및 玉門 위	주황문 ~ 네째 손가락 끝	주황문 ~ 가운데 손가락 끝
取穴	척추위 한 점은 혈자리로 쓰지 않음 좌우 0.5촌 떨어진 두 점	척추위 한 점은 혈자리로 쓰지 않음 좌우 1촌 떨어진 두 점	척추위 한 점과 상하좌우 1촌 떨어진 네 점 모두 다섯 개의 혈자리를 사용한다	척추위 한 점은 혈자리로 쓰지 않음 ¹⁵⁾ 좌우 1촌 떨어진 두 점 모두 두 개의 혈자리를 사용한다
主治	제반 癰疽 疔 癬 瘰癧	제반 疔證, 특히 水疔	胸部 腹部的 疼痛疾患	제반 癰疽 瘡瘍
壯數	통증의 변화에 따라	3 ~ 7壯	30 ~ 100壯	3 ~ 7壯

2. 침자깊이에 대한 관심 - 鍼中腕穴手法, 癰積鍼法

기법 가운데, 특징적으로 침자깊이를 중요시한 기법들이 있었다. 이 수법들은 침을 찌를 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찢러 넣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침자

¹⁵⁾ 高武는 『針灸聚英』에서 이 점이 督脈의 筋縮(제7흉추 극돌기 아래)과 至陽(제9흉추 극돌기 아래) 사이라고 말하였다. 또 좌우로 1촌 떨어진 것은 1.5촌에 있는 膈俞와 肝俞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하였다.

깊이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임상에서 혈위 뿐만 아니라 수법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침자 깊이를 중요시한 ‘鍼中腕穴手法’과 ‘癍積鍼法’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한 내용이다.

鍼中腕穴手法 - 사람들마다 피부와 장기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깊이를 고정할 수 없고 단지 시술자의 느낌에 따라 자침해야 한다. 먼저 中腕穴을 찾고 침으로 표피를 뚫고 침을 깊이 들여보낸다. 그러면 시술자는 처음에는 견고한 것 같으나 곧 허공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여기서 더 들여보내면 침이 딱딱한 것에 닿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환자가 조금 움직거리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진침시키지 않고 10번 숨 쉴 동안 머물렀다가 서서히 빼준다.

癍積鍼法 - 癍積은 피부의 안쪽, 복막의 바깥쪽[皮裏膜外]에 생겨난다. 대부분의 침치료가 실패하는 것은 침을 너무 얇게 찌르기 때문이다. 癍積鍼法의 핵심은 침을 자입할 때에 침 끝이 복막에 닿을 정도로 깊이 찌러 넣는 것이다.

3. 동양 삼국의 침구기법 교류

이번 기법 조사를 통하여 韓·中·日 동양 삼국의 침구기법이 어떻게 교류되었는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八穴灸法이다. 八穴灸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전래된 기법으로 許任의 『鍼灸經驗方』에도 인용되어 있다. 八穴灸法이 실려 있는 『重刊神應經』은 조선에서 인조21년(1643)에 훈련도감 활자로 인쇄하였다. 이 책의 저본인 『神應經』은 본래 중국의 명나라때 진회(陳會)가 지은 것을 1425년에 유근(劉瑾)이 교정한 것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重刊神應經』은 일본에서 1645년에 『梓桑君 鍼通傳宗圖』라는 이름으로 목판으로 다시 간행되게 된다.¹⁶⁾ 이처럼 八穴灸法은 韓·中·日 동양 삼국 사이에 침구 기법이 교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鷄足鍼法을 통해 우리나라의 침구 기법이 일본에 전래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鷄足’은 원래 『內經』에서 기원한 용어이다. 하지만 자세한 기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가들의 의론도 매우 적다. 그런데,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鍼法’으로 이름 붙이고 특별히 「鍼灸篇」 말미에 하나의 조문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⁷⁾ 그러나 『東醫寶鑑』의 내용은 간략하기 때문에, 『東醫寶鑑』이 鷄足鍼法에 주목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었다.

16) 『重刊神應經』의 간행과 판본에 대해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神應經 해제」에서 재인용 하였다.

17) 동의보감의 ‘鷄足鍼法’ 내용은 樓英의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내용이지만, 樓英 또한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內經』의 각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 문헌에서는 이를 『東醫寶鑑』과 같이 ‘鍼法’이라고 까지 조문화하여 따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조사 과정에서 鷄足鍼法の 또 다른 모습을 일본의 침구서인 『鍼灸極秘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鍼灸極秘傳』은 조선인 의관인 김덕방(金德邦)에게 전수 받은 내용을 근간으로 꾸며진 책¹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鷄足鍼法을 실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東醫寶鑑』의 ‘鷄足鍼法’이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었던 침구기법 가운데 하나를 기존 문헌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사실과, 조선의 침구 기법이 당시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또 다른 일본 침구서는 『藏珍要編』이다.¹⁹⁾ 현재 『藏珍要編』의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입수되어 아직 자료로서 불완전하지만, 19C말 조선의 침구법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이 침구서에는 列缺, 內關, 公孫 등 八脈交會穴과 三陰交, 合谷, 太衝, 足三里 등 10개 안팎의 혈들만을 이용하여 제반병증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잊혀진 19C 조선 침구의학의 잔상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란과 일제 강점의 수난, 6.25 동란으로 인해 많은 서적들이 실전되었다. 특히 침구학에 대한 전문서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조사를 통해 韓·中·日 동양 삼국 사이에 침구기법이 교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외국의 자료들을 통해 우리 침구기법을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다.

4. 한의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의 가능성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하는데 있어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제공하는

¹⁸⁾ 『침구극비전(鍼灸極秘傳)』은 일본의 목촌원정(木村元貞)이 1780년에 간행한 침구전문 의서이다. 이 책의 원저자는 일본인 갑비덕본(甲斐德本)이라는 사람으로서, 경장(慶長)년간(1596~1615)에 조선인 의관인 김덕방(金德邦)에게 전수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갑비덕본(甲斐德本)의 이 책을 뒤에 목촌원정(木村元貞)이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출간 이후에 이 책은 일본에서 기사회생의 비전 침술로 호평(好評)을 받았다고 한다.

의관인 김덕방(金德邦)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서적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는 유명한 의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내용이 전래된 시기를 (1596~1615)이라고 본다면, 동의보감과 거의 동시대로서, 조선 중기에 계족침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침구극비전(鍼灸極秘傳)』에 대하여서는 안상우, 『고의서산책31』 鍼灸極秘傳(민족의학신문 2000.5.15) 참조

¹⁹⁾ 이 책은 한권으로 이루어진 침구전문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책의 서문에서는, 고종31년(1894)에 저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松又溪로 그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서문에서 자신을 江陽後人(지금의 경남 합천 땅)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이 언제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편자의 서문을 통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원본은 寫本으로 일본의 침구학자 柳谷素靈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설명을 달았는데, 1957년 미처 출판하지 못한 채 이듬해 5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뒤에 池田政一이 柳谷素靈의 책을 보충하여 1988년에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장진요편(藏珍要編)』이라는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안상우, 『고의서산책157』 藏珍要編(민족의학신문 제416호, 2003) 참조

“한의학지식정보 웹서비스”를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그간 DB를 이용하는 몇몇 연구가 있어왔으나, DB 자체에 대한 관심²⁰⁾이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논문 검색²¹⁾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와 같이 DB를 통하여 고전문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논문도 있었으나, 검색을 위해 DB 자체를 구축하여 수행된 연구였다.²²⁾

정보가 산업화 되는 오늘날, DB는 과거 철도나 고속도로가 수행하던 사회간접자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일일이 수집하고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번 구축된 DB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논문 검색 위주의 DB를 넘어서서 醫書의 原文과 이미지를 제공하고, 용어에 대한 개념과 기법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하는 DB들이 구축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한의학 DB를 이용하여 원문을 제공받고 검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 기법들을 찾아내어 비교할 수 있었으며 부수적으로 의서들간의 전사관계도 알 수 있었다. 또 기본적인 검색 이외에 해당 문헌에 대한 해제를 이용하여 의사학적인 배경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시소러스’ 서비스를 통하여 한의학 용어를 검토하여 검색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도구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DB를 이용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개발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중요한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16권 1호, 2003)
2. 김영옥 외, 골다공증의 연구 경향에 대한 고찰 - 한의 학술 논문 검색을 중심으로 - (대한추나의학회지 5권 1호, 2004)
3. 문우상 외, 外治療法의 理論과 適應症에 대한 史的 考察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0권 2호, 2004)
4. 안상우, 『[고의서산책31] 鍼灸極秘傳』(민족의학신문 2000.5.15)
5. 안상우, 『[고의서산책157] 藏珍要編』(민족의학신문 제416호, 2003)
6. 이병욱 외, OMIS의 키워드와 통제어 일치도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정보학회지 11권 1호, 2005)

20) 이병욱 외, OMIS의 키워드와 통제어 일치도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정보학회지 11권 1호, 2005)

21) 김영옥 외, 골다공증의 연구 경향에 대한 고찰 - 한의 학술 논문 검색을 중심으로 - (대한추나의학회지 5권 1호, 2004)

22) 문우상 외, 外治療法의 理論과 適應症에 대한 史的 考察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0권 2호, 2004)

[별첨 - 전통침구법 복원 예시]

1. 氣衝灸法

2. 개요

脚氣를 치료하기 위하여 鼠蹊部 氣衝穴 부근의 경결점에 뜬을 떠서 치료하는 뜬법

3. 유래 및 근거문헌

* 문헌근거 : 申旻 『舟村新方 활자본 卷之三(大人)·後陰 腫脹』, 錦里散人 『醫彙 卷之二·脚氣』, 李宗壽 『秘傳萬病通治法·治水腫脚』 (1933)

* 유래 :

4. 기본방식

① 氣衝穴을 선혈한다.

각기로 붓거나 아픈 쪽 다리의 기충혈을 잡는다. 『鍼灸資生經』에 따르면 氣衝穴은 배꼽 아래 曲骨(치골결합 상연)에서 양방향으로 떨어진 곳으로 鼠蹊部 위에 위치한다. 『鍼灸經驗方』에 따르면 몸 중앙에서 젓꼭지 넓이(2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맥이 뛰는 곳이라고 한다.

② 氣衝穴 근처에서 경결점을 찾는다.

氣衝穴을 선택한 다음, 氣衝穴 근처의 단단히 뭉친 조직이 있는지 찾는다.

③ 경결점에 뜬을 뜬다.

위에서 찾은 경결점에 증상에 따라 3~7장 가량 뜬을 떠준다.

5. 임상응용

氣衝灸法의 주치증은 다리가 붓고 아픈 등의 脚氣이다. 『東醫寶鑑』에 근거하여 脚氣를 증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음 傷寒의 증상과 같이 頭痛 發熱등의 증상이 있다가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아프고 근육이 뒤틀리고 붉게 붓는다.

② 대퇴에서 무릎까지, 혹은 무릎에서 발목까지 병변이 나타난다.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굽히기가 힘들고 완고하게 아프면서 땅긴다.

㉡ 다리가 달아오르기도 하고 붓기도 한다.

③ 다리가 아프거나 붓는 주 증상과 함께 다음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 열이 심하게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

㉣ 관절 마디마디가 땅긴다.

㉤ 발가락이 여기저기 아프다.

㉥ 근육이 뒤틀리면서 갑자기 아프다.

- ㉠ 아랫배에 둔한 느낌이 들다가 가슴으로 올라와 답답하고 숨이차며 가슴이 뛰기도 한다.
- ㉡ 밝은 것을 싫어하고 배가 아프면서 설사하고 담연을 토해내고 음식 냄새를 싫어한다.
- ㉢ 대변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주의사항

氣衝灸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결점을 찾고 그 위에 정확하게 뜬을 뜨는 것이다. 경결점을 찾고 뜬으로 이 경결점을 풀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시술이 요구된다. 또 서해부는 체간과 다리를 이어주는 곳으로서 중요한 신경 및 혈관들이 지나가는 요충지이다. 때문에 醫書에서도 이 곳의 혈들을 침을 놓지 말아야 할 禁鍼穴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결점을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침 등으로 무리하게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다.

7. 분석평가

脚氣는 다리에 水濕이 모여 생겨난 병으로서, 다리가 아프면서 붓는 병이다. 각기는 주로 안으로 음식정체, 성생활 문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밖으로는 濕한 邪氣를 감수하여서 발생한다. 이러한 內因 혹은 外因으로 인하여 몸에 濕이 울체되고, 울체된 濕이 熱을 만들어 濕熱이 같이 치성하면서 병의 증상이 발현되게 되는 것이다. 의서에서도 脚氣를 “울체된 질병[壅疾]”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脚氣의 치료법은 “펼치고 통하게 해주는 약을 투여하여 기가 울체되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 그 첫째이다. 그러나 “이미 울체되어 세력이 커졌을 때에는 펌석 등으로 惡血을 제거하여 그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몸 안에 기운이 심하게 정체된 것이 脚氣의 본질이라면, 大小便을 풀어줘서 濕熱의 기운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脚氣치료의 본질이다.

『千金方』에서는 “脚氣의 병에 鍼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데 鍼으로 붓고 아픈 병소를 찌러 惡血을 뽑아내는 것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脚氣의 침구법은 주로 붓고 아픈 곳을 출혈 시키거나, 風市·伏兔·三里·絶骨 등 다리를 주관하는 경혈에 침과 뜬을 놓는 것을 위주로 하여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氣衝灸法은 매우 특이한 방법이다. 뜬을 뜨는 자리가 병변인 다리가 아니라 다리 위쪽인 서해부 부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氣衝灸法은 기존의 치료법 보다 本治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사지 말단의 병변 또한 五臟六腑가 속해 있는 體幹에서 연유한 것이고, 그러한 체간과 다리사이의 기운이 정체되어 각기가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그 접합처인 서해부를 소통시키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될 것이다. 소통을 위해 氣衝穴 근처의 경결점을 찾고, 이를 뜬으로 풀어내어 각기를 치료했던 것은 결국 기혈 울체의 근본 부위부터 그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內經』에서는 이 脾(서해부와 대퇴를 포괄하는 명칭)라는 부위가 脾의 邪氣가 모이는 곳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는 水濕이 울체된 병이고, 이 濕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脾이다. 또 氣衝이 속해 있는 경락은 足陽明胃經으로서 脾와 표리가 되는 경락이다. 이렇게 본다면 氣衝灸法은 비위를 운행시켜 다리의 수습을 제거하고 각기를 치료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특이사항

서혜부 부위는 서양의학에서 림프절이 모이는 곳으로서 체내의 병증으로 경결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림프가 체액 순환에 관여하는 만큼, 림프 순환의 측면에서 氣衝灸法을 연구해 본다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氣衝灸法을 脚氣 뿐만 아니라 疝證, 食滯 등 다른 氣滯 증상에 응용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9. 참고문헌

김두중, 한국의학사

10. 채록자

오준호

○ 해당원문

3.

* 『舟村新方 활자본 卷之三(大人)·後陰 腫脹』

脚氣病 脚大腿本節腹際 卽氣衝穴 必先有結核 艾灸三七壯 神效 灸此則無不去根 後不復發

* 『醫彙 卷之二·脚氣』

凡痛脚氣者 病脚大段本節腹際적다리가리듯셔논더 氣衝穴處 必先有結核 以好艾灸其核三七壯 神效 灸此則無不去根 後不復發

* 李宗壽 『秘傳萬病通治法·治水腫脚』 (1933)

□治=水腫脚

氣衝穴在兩脚자가미平臥臍傍各三寸直下六寸也寸法兩乳間切作八寸用 艾灸三七壯

神效 灸之則無卜祛根後不復發

7.

* 許浚 『東醫寶鑑·足門』

【脚氣治法】脚氣是爲壅疾 治以宣通之劑 使氣不能成壅 壅既成而盛者 砭惡血而去其重勢 經曰蓄則腫熱 砭射之後 以藥治之<綱目>